탐방시나리오

제목 : 야생화 파크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

속리산야생화파크 해설시나리오

＊ 야생화의 개화시기에 맞춰 해설 자원을 적절하게 선택 ＊

1.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자연환경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야생화를 볼 수 있도록 속리산사무소에서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신비한 자연 속으로 떠나 보실까요.

2. 노루귀

※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
서　식 : 각처 숲 밑
꽃　색 : 흰색, 연한 붉은색
개화기 : 4월
결실기 : 6월
용　도 : 관상용, 전초는 약용

여기를 보시는 이 꽃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른 봄 얼음이 녹지 않은 추운 날에도 작고 화사한 꽃을 피움으로써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잎은 꽃이 진후 에 나오는데 그 모습이 노루의 귀를 닮았다하여 노루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계곡에 얼음이 녹기 시작할 무렵 꽃을 피우는 노루귀는 생강나무, 복수초와 함께 우리에게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3. 현호색

※ 쌍떡잎식물 양귀비목 현호색과의 여러해살이풀
서　식 : 각처 산야
꽃　색 : 연한 자주색
개화기 : 4-5월
결실기 : 6-7월
용　도 : 괴경은 약용

이 꽃은 이른 봄 다른 꽃보다 앞서서 피고 일찍 시들어 버리는 특징을 가

진 현호색이라는 꽃입니다. 꽃의 모양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양귀비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며, 연한홍자색, 청자색, 회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진 꽃이기도 합니다.

4. 제비꽃

※ 쌍떡잎식물 측막태좌목 제비꽃과의 여러해살이풀
서 식 : 각처 들
꽃 색 : 보라색, 짙은 자주색
개화기 : 4-5월
결실기 : 6-7월
용 도 : 어린잎은 식용, 근경은 약용

보라색을 가진 이 꽃을 혹시 아시나요? (대답을 듣고)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장수꽃, 씨름꽃, 병아리꽃, 오랑캐꽃 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자세히 꽃을 보시면 커다란 꿀주머니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어린순은 나물로도 먹습니다.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은 프랑스 혁명으로 남편과 함께 감옥살이를 할 때 간수의 딸이 선물한 제비꽃 다발을 받은 후 석방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제비꽃을 무척 좋아해 옷에도 그 꽃을 수놓았고 생일 때마다 남편인 나폴레옹으로부터 제비꽃을 선물 받았으나 이혼 후에는 다시는 제비꽃을 보지 않았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비꽃의 종류는 많습니다. 우리가 속리산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제비꽃, 고깔제비꽃, 흰젖제비꽃, 남산제비꽃, 졸방제비꽃, 콩제비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치시지 마시고 주변을 잘 살펴보면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5. 은방울꽃

※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서 식 : 각처 산기슭
꽃 색 : 흰색
개화기 : 4-5월
결실기 : 9월
용 도 : 관상용, 어린잎은 식용

이 꽃모양을 잘 봐주세요. 무엇을 닮았을까요?(대답을 듣는다) 이 꽃은 모양이 방울 같고, 색깔이 흰색이라 은방울이란 예쁜 이름을 얻은 은방울꽃입니다.

산과 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으로 바람이 통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잘

자랍니다. 향기가 좋아 향수화라고도 하며,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은방울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레오나르드라는 용감한 청년이 있었는데 깊은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무서운 화룡을 만나서 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 승부가 좀처럼 나지 않고 4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끝내 청년이 이겼지만 머리에서 붉은 피가 떨어졌으며 피가 떨어진 땅에서 방울방울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 꽃이 바로 은방울꽃이랍니다.

6. 할미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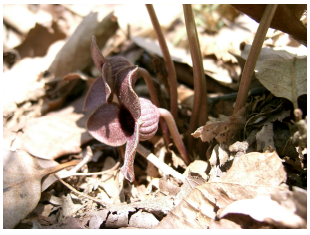
※ 쌍떡잎식물 미나리아재비목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
서 식 : 각처 산이나 들의 양지
꽃 색 : 검붉은 자주색
개화기 : 4-5월
결실기 : 6-7월
용 도 : 관상용, 뿌리는 약용

전국의 산야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특히 양지바르고 건조한 곳에서 자라 묘지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는할미꽃, 분홍할미꽃, 산할미꽃 등 3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꽃은 4월에 적자색으로 화경 끝에 1개씩 밑을 보고 피는데, 꽃잎 겉은 흰털이고 속은 적자색입니다. 흰 털로 덮인 열매의 덩어리가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 같이 보이기 때문에 할미꽃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독성이 있다 보니 예로부터 사약이나 음독에 쓰이기도 했고, 화장실 변기 속에 할미꽃 뿌리를 넣어두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른 여름철에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꽃이 필 때 굽어 있으니 젊어서도 할미꽃, 열매가 익으면 백발노인의 머리를 연상시켜 늙어서도 할미꽃이라 하여 백두옹이라고도 합니다.

7. 족도리 풀



※ 쌍떡잎식물 쥐방울덩굴목 쥐방울덩굴과의 여러해살이풀
서 식 : 각처 산지의 수림
꽃 색 : 검은 자주색
개화기 : 4-5월
결실기 : 8-9월
용 도 : 뿌리는 세신이라하여 약용

겉에서 보면 이 속에 꽃이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꽃은 잎 속에 수줍은 듯이 피어있습니다. 꽃의 모양을 보세요. 족도리라고 아시나요? 족도리는 옛

날에 시집가는 신부의 머리에 쓰던 것인데, 꽃이 족도리를 닮아서 족도리풀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보기와는 달리 뿌리에 매운 맛이 강하기 때문에 세신이라고 부르며, 뿌리를 함부로 씹으면 혀가 마비되어 말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관상용과 약용으로 쓰이지만 유독성이므로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8. 붓 꽃

※ 외떡잎식물 백합목 붓꽃과의 여러해살이풀
서 식 : 각처 산 들
꽃 색 : 보라색
개화기 : 5-6월
결실기 : 7-8월
용 도 : 관상용

반그늘에서 잘 자라며, 꽃봉오리가 붓의 끝 모양과 닮아 붓꽃이라 부릅니다. 어찌된 일인지 생김새도 전혀 다른데 붓꽃은 흔히 백합과 비교됩니다. 붓꽃의 잎은 검이라 하고, 백합은 기사의 꽃이라고 하여 붓꽃은 백합과 함께 기사의 꽃이 되었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특한 색깔과 자태 때문에 오래 기억하게 되는 꽃 중 하나입니다. 속리산에서는 금붓꽃과 함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계손(溪蓀)· 수창포· 창포붓꽃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9. 기린초

※ 쌍떡잎식물 이판화군 장미목 돌나물과의 여러살이풀
서 식 : 중부이남 산 바위
꽃 색 : 노란색
개화기 : 6-7월
결실기 : 9-10월
용 도 : 어린잎은 식용

양지 바른 바위틈에서 주로 잘 자라는 노란 빛깔의 기린초는 강원도 일부 지방에서는 '혈산초'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잎사귀는 보시는 것처럼 주걱모양으로 어긋나게 달리고 꽃송이들을 보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기린초는 점모시 나비의 먹이가 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속리산에는 속리산, 군자산, 전라남도 추자도에 자생하는 속리산기린초가 유명한데요. 기린초보다 키가 작고 꽃은 7-8월에 핍니다.

10. 범부채

※ 외떡잎식물 백합목 붓꽃과의 여러해살이풀
서　식 : 각처 들 산지
꽃　색 : 황적색에 검은 자수 반점
개화기 : 7-8월
결실기 : 9-10월
용　도 : 관상용, 근경은 약용

호선초, 편죽란, 금호접이라고도 부르며 꽃에 호랑무늬 반점이 있고 잎의 모양이 마치 접이부채를 절반 쯤 펴 놓은 것 같이 생겨서 범부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야생화입니다. 잎의 모양만 보아서는 붓꽃과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황적색의 독특한 꽃이 피어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범부채는 번식력이 강해서 가을에 채취한 씨앗을 화분에 바로 심어도 십일 정도 지나면 싹이 올라옵니다. 요즘 관상용으로 많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11. 상사화

※ 외떡잎식물 백합목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서　식 : 중부이남
꽃　색 : 연보라색
개화기 : 8월
결실기 : 9월
용　도 : 관상용

이 꽃을 보세요. 다른 꽃들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대답을 기다린다) 다른 꽃들은 잎이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꽃을 보면 잎을 찾아 볼 수 가 없습니다. 잎은 봄에 올라와서 꽃이 피기 전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시는 아름다운 꽃이 올라옵니다. 잎과 꽃이 평생 만나지 못해 서로 그리워하다 병이 낫다는 이야기로 상사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중국원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화단이나 절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12. 고마리

※ 쌍떡잎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과의 덩굴성 한해살이풀.
서　식 : 각 처 들이나 물가
꽃　색 : 연분홍, 흰색
개화기 : 8-9월
결실기 : 10-11월
용　도 : 줄기와 잎은 약용

한 여름 물가에서 싱그럽게 꽃이 피어나며, 물을 맑게 만들어 준다하여 '고마워라'에서 고마리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우면 '고마리' 일까요? 그만큼 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이겠지요. 고마리는 물가 식물이기 때문에 많은 곤충의 서식처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물도 깨끗하게 해주고 곤충들이나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집이 되어 주기도 하니 정말 고마운 식물이지요.

13. 익모초

※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꿀풀과의 두해살이풀.
서 식 : 각처 들, 밭
꽃 색 : 연한 홍자색
개화기 : 6-9월
결실기 : 9-10월
용 도 : 전초는 약용(산후 출혈 지혈제 등)

육모초, 곤초, 사릉초라고도 부르며, 여성의 질환에 이롭다하여 익모초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두해살이풀로 첫해에는 심장 모양의 잎이 뿌리에서 붙어서 나고, 이듬해에는 줄기가 나서 자라며, 줄기에 나는 잎은 깃처럼 깊게 갈라져 마주 납니다. 여성들의 여러 가지 질병에 매우 좋은 약으로 이름이 높은데, 특히 산전 산후에 보약으로 널리 쓰이는 식물로 인간에게 아주 이로운 식물입니다.

14. 좀비비추

※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서 식 ; 중부이남 산지
꽃 색 : 연한 자주색
개화기 : 7-8월
결실기 : 9월
용 도 : 관상용, 어린싹은 식용

조선비비추라고도 부르며, 숲 속에서도 자라고 줄기는 곧게 세웁니다. 잎은 무더기로 나와서 비스듬히 서고, 넓은 달걀 모양으로 보시는 것처럼 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라는데 이것을 총상꽃차례라고 합니다. 줄기 및 잎을 생식하거나 데쳐서 먹을 수 있고, 관상가치가 뛰어나고 기르기도 쉬운 편입니다.

※ 총상꽃차례 : 총상화서(總狀花序)라고도 한다. 중심축에 꽃대가 있다. 무리져 피는 하나하나의 꽃이 짧은 꽃자루에 달려 있고 모든 꽃자루는 길이가 거의 같다. 꽃줄기는 길게 자라고 고른 간격으로 꽃눈이 만들어지는데 금어초처럼 줄기와 꽃자루가 만나는 자리, 즉 겨드랑이 위쪽에 잎처럼 생긴 포(苞)가 달리기도 한다. 유채 등이 이에 속한다.

15. 초롱꽃

※ 쌍떡잎식물 합판화군 초롱꽃목 초롱꽃과의 여러해살이풀.
서 식 : 각처 산 들
꽃 색 : 흰색 또는 자주색 반점
개화기 : 6-8월
결실기 : 9-10월
용 도 : 관상용, 어린잎은 식용

보시는 것처럼 꽃이 가지 끝에 매달려 밑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옛날 밤길을 밝히기 위해 들고 다녔던 초롱과 닮았다 하여 초롱꽃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요즘은 초롱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초롱(또는 호롱)이라는 말은 등불의 기름을 담아두는 작은 용기만을 말하는데, 흔히들 초롱이라 하면 원래의 뜻이 조금 확장되어 혼례식에 쓰던 청사초롱(청사등롱)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청사초롱은 원래 용도는 결혼식이 아니라 조선시대에 정2~정3품의 벼슬아치가 의식이나 밤에 다닐 때 썼던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더 높은 벼슬인 정·종1품의 벼슬아치는 홍사초롱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등불 바깥에 둘러 친 천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에 따라 이름이 달랐던 거지요.

16. 구절초

※ 쌍떡잎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서 식 : 각처 산지
꽃 색 : 흰색
개화기 : 8-10월
결실기 : 10-11월
용 도 : 관상용, 전초는 약용(부인병)

구일초, 들국라고도 부르며, 가을꽃이 달린 전체를 말려서 다려 복용하면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하여 선모초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음력 9월9일이 되면 마디가 아홉 개가 된다고 하여 아홉 구 마디 절을 써서 구절초라고 부릅니다. 또 중국에서는 9월 9일 구중절에 익모초로 담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쑥부쟁이, 개망초, 개미취 등과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꽃색과 잎을 자세히

보면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17. 두메부추

※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서 식 : 울릉도, 강원도, 함경북도 백두산 관모봉 산지 자생
꽃 색 : 홍자색
개화기 : 8-9월
결실기 : 9-10월
용 도 : 전초는 식용

산구, 메부추라고 부르며, 울릉도, 강원 이북 쪽에 자생지가 있습니다. 두메라는 말은 산골 마을이라는 순 우리말입니다. 그 만큼 산 깊은 곳에 자란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메부추는 울릉도 특산식물인데 요즘은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산부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18. 백리향

※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꿀풀과의 낙엽 반관목
서 식 : 각처 높은 산 바위 위
꽃 색 : 분홍색
개화기 : 7-8월
결실기 : 9월
용 도 : 관상용, 향미료, 줄기, 잎은 약용

백리향이란 향기가 발끝에 묻어 백리를 간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삭처럼 피어난 작고 앙증맞은 꽃송이들이 품어내는 향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잎을 비비면 그 끝에 묻어나는 향기도 아주 특별하답니다. 향기가 천리를 가는 꽃은 그럼 무슨 꽃일까요?(천리향)

19. 마무리하기

지금까지 속리산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화의 특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꽃의 이름이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친구의 이름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여유로운 시간을 하루에 몇 분 정도는 가지시기 바라면서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